

| 파일명<br>구분     | 회의록  | 제 차   |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|-------|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|  | 작성 자  | 김형범        |
|               |  | 회의일자  | 2015.12.23 |
| 회의 장소 및<br>주제 | <b>■ 회의장소</b> : 토즈 교대점<br><b>■ 회의주제</b><br>1.“FAR GAME”주제에 대한 프리젠테이션<br>(소장 정이삭, 교수 안기현)<br>2.“FAR GAME”주제에 대한 회의<br>3.회의 정리   | 참 석 자 |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 | 서울시립대 | 교 수 김성홍    |
|               |  | 한양대   | 교 수 안기현    |
|               |  | 인천대   | 교 수 신은기    |
|               |  | 단국대   | 교 수 김승범    |
|               |  | 에이코랩  | 소 장 정이삭    |
|               |  | 공간지   | 편집장 박성진    |
|               |  | 서울시립대 | 정다은        |
|               |  | 서울시립대 | 김형범        |
| 내 용           | <b>■ 프리젠테이션(교수 안기현)</b><br>1.사례<br>①Co-Housing(AND Design Architecture)<br>②Commercial(BangbyMin)<br>③Co-Housing(Chae-Pereira Architects)<br>④Co-Housing(Designband_YOAP)<br>⑤Commercial(L'EAU Design)<br>⑥Residential(O.B.B.A)<br>⑦MICRO-Co-Housing(SSD)<br>⑧Co-Housing(Studio WXY)<br>⑨Office(The System LAB)<br>⑩Co-Housing(Wise Architects)<br>⑪Street Corner Building(Archium)<br>⑫Co-Housing(The Scape)<br>⑬기타   |       |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<b>■ “FAR GAME”주제에 대한 회의</b><br>1.국내는 개인이 건축주가 되는 경우가 많음(AKH)<br>2.건축주 이익 바탕에서 건축가가 풀어나가는 방식이 각각 다름.<br>3.사례 대부분 2010년 이후의 작품이고 젊은 건축가들로 구성.<br>4.페포니스 교수 얘기에 따르면 국내사례들이 일본 사례들과 비슷하면서도 뭔지는 모르지만 다른 점이 있음.(KSH)<br>5.영국 Ricky Burdett 교수는 아라베나의 후견인 정도 됨. 공간을 조직으로 보여줘야 하고 그것이 일본, 미국, 영군의 것과 달라야 한다고 말함.(KSH)<br>6.도로에 두면이 접한 대지는 좋은 대지라 할 수 있음(AKH)<br>7.도로사선이 없어도 일조사선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선의 의한 형태는 계속 존재(AKH)<br>8.사선에 의한 형태는 네덜란드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(CIS)<br>9.2000년대 이전에는 사선에 의한 형태는 없었는데 왜 그런가?(KSH)<br>10.국내에 다이어그램을 쓰게 된 것은 2000년대부터라고 생각. 그리고 다이어그램으로 공간을 푸는 방식은 교육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<br>11.의외로 네덜란드에서는 다이어그램으로 계획을 못한다고 함(KSH)<br>12.2010년부터 1인 건축사무소 증가 하였고 거대 건설시장과 같이감. 교육과 같이 세대도 같이 맞물려 왔다고 생각.(SEG)<br>13.예전부터 사선의한 형태는 집장사들이 반복해서 온 것으로 생각함(CIS)<br>14.사례에서는 보여지는 것처럼 건축가들이 모든 다른 언어로 설명하고 있지만 비슷한 게임으 |       |            |

로 보여짐(SEG)

- 15.전시를 고려해서 작품 개별적으로 보여주기 보다는 전체적인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.(CIS)
- 16.우리나라는 80년대에 들어서면 건설 패러다임이 아파트로 넘어감(KSH)
- 17.금융위기에 건축사가 집장사 범위로 돌아갔다고 생각(KSH)
- 18.우리나라 건축은 일본과 다른 영리함이 있다고 생각(KSH)
- 19.용적률이 메인 이슈가 될 수 있는가?(AKH)
- 20.대부분 계획들이 최대 맥시멈에서 시작한 후에 볼륨을 차지하는 방향으로 함(AKH)
- 21.용적률이 이전에는 붙여나가는 방식에서 시작해서 형태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형태에서 떼어나가는 방식으로 변하였다고 생각(SEG)
- 22.용적률을 형태의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으로도 생각 할 수 있다고 봄(PSJ)
- 23.맥시멈과 볼륨 사이에서 버퍼공간과 사이공간을 만들어낸다고 생각(SEG)
- 24.건축가 개별작품들의 내용을 전반부에 보여줘서는 안된다고 생각.(KSB)
- 25.전체질서 중에 개별작품들은 일부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(KSB)
- 26.건축가의 개별작품들은 전시에서 중요하다고 봄(KSH)
- 27.영국에서는 'FAR' 용어가 없고 프랑스에서도 한 개인이 'FAR'를 찾지 않고 옵티멀 사이즈를 고려함(KSH)
- 28.다른나라와 우리나라 'FAR'이 무엇이 다른가 찾아야 함(KSH)

■프리젠테이션(소장 정이삭)

- 1.집장사들이 담당하고 건축가들이 등한시한 영역에 대해 역할이 바뀌었다고 생각
- 2.건축가 없던 건축들이 건축가에 의해 정리, 진화 되어졌음.
- 3.인포멀 섹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플래너들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.
- 4.현재 정해진 용적률 수준이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는지 살펴 볼 필요 있고 서울 안에서 용적률을 다시 재고해 볼 필요 있음.
- 5.평균 용적률 124%는 재해석 될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은가?
- 6.집장사 영역에서 발견 되는 것은 군집화 되는 것이라 생각함.
- 7.건축 교육에서 80년대와 지금의 상황이 다름.(AKH)
- 8.사회적 배경의 정리는 필요하다고 생각.(KSB)
- 9.형태, 유형이 생겨나게 된 것이 다이어그램, 톨 등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.그리고 네덜란드의 영향이 크다고 봄.(KSB)
- 10.지어놓고 들어가는 시대, 공실률의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(KSB)
- 11."한국건축이 독특한" 내용보단 사회적 배경, 우리나라 상황을 강조해 보는 것이 중요. 그것으로 건축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(KSB)
- 12.용적률에 대해서 독특한"플레이어"들이 있다고 생각(KSB)
- 13.글을 기고 할 수 있는 훌륭한 개발자가 있는가?(KSH)
- 14.아라베나의 핵심은 첫째 Why Care?, 두 번째는 다른나라,사라들과 어떻게 세어하는가?,세 번째는 내용을 어렵하게 하지 않고 심플하게 하는 것임.(KSH)
- 15.전시내용은 30초 안에 설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략을 잘 짜야 함(KSH)
- 16.엘레베이터와 고층 건물에 대한 내용을 뺄 필요가 있는가?(KSH)
- 17.빌딩유형들을 다룬다하면 고층건물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(KSB)
- 18.고층건물이 열려 되는 것은 단지 개념 때문(SEG)
- 19.프론티어는 "젊은 건축가"가 되지 않을까?(KSH)
- 20.유형들은 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(AKH)
- 21.용적률에 대한 명백한 게임은 조민석 건축가의 '부띠끄 모나코'라고 생각(KSH)

■ 회의정리

1. 앞으로 회의에서 결정해야 될 내용

① 실제적인 내용의 재료를 거르는 일

② 전시장 색깔

③ 운송문제

2. 스튜디오는 시립대에서 함.

3. 운송문제를 전략적으로 고려(배 운송: 테이블 등/ 항공운송: 도면 등)

4. 매스스터디 방문 예정

5. 30일 오후 2시 시립대 전시실에서 하는 것으로 함.

6. 30일 안건 내용

① 전달할려는 메시지는 무엇인가?(제목/주제)

7. FAR에서 대한민국, 맨하탄, 도쿄와 어떻게 다른가?(KSH)

8. FAR에 의한 경제적 합의는 무엇인가?(KSH)

9. FAR에 대해서는 문화권 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. 재산증식은 우리나라만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(SEG)